

〈구역모임 교재 / 2025년 7월 13일 주간〉
“ **하나님의 돌보심, 회복의 시작**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이
- * **찬 송** : 자유롭게 / 다 같이
- * **합심기도** : 오늘의 구역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모인 장소의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 * **대표기도** : 지난 주에 예배드린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한 분
- * **성경봉독** : 사사기 9장 56~57절(구약 p.379)

▶ **A. 구역공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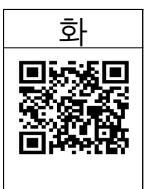
1. 지난 한 주간동안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느꼈던 일이나, 주일영광예배 때 나눈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아버지의 아들 70여 명을 한 바위에서 죽일 때에 막내 아들 요담이 혼자 살아남아 그리심 산에 올라 세겜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아비멜렉을 고발합니다. 이때 요담은 숲에서 왕을 세우는 비유를 드는데요. 다음 중 스스로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 나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삿 9:15)
① 무화과 나무 ② 가시나무 ③ 감람나무 ④ 포도나무
3. 이번주 사사기 9장을 통한 말씀에서 ‘불의한 지도자를 세운 것은 백성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지도자’와 ‘그를 세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또, ‘백성이 지도자를 세운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시를 참고하여 함께 생각해 보세요.
예시) -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통해 지도자를 위한 기도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 선거, 학교, 직장 내에서 공정하고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 지도자의 잘못을 보았을 때 침묵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건설적 비판을 시도합니다.
4.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곧 그의 아버지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여 저지른 악을 갚으십니다. 특히 자존심 강한 아비멜렉의 최후는, 그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최후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떠한 최후였는지 성경을 근거로 나누어 보세요(삿 9:52~55).

▶ **B. 공동체 성경읽기** ◀

월요일(사 50~53장) 이스라엘의 죄로 포로된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걷고, 자기 불을 의지하는 자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화요일(사 54~59장)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 그리고 죄에 대한 경고와 회개 촉구를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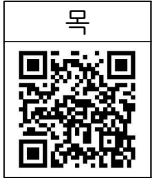


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고자조차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분의 집에서 기념될 것입니다. 백성은 거짓, 불의, 포악 등으로 타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위해 ‘구속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후손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수요일(사 60~62장) 예루살렘(시온)의 회복과 영광, 그리고 메시아적 시대의 도래에 대한 희망적인 예언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빛을 비추시고,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며, 열방이 그 빛으로 모이게 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선포됩니다. 파수꾼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격려하고, 예루살렘을 결코 다시 버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구원의 깃발로 높이 들려 열방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사 63~66장)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 중보자의 기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회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궁극적인 종말론적 회복이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기쁨을 누리고, 거역하는 자는 수치를 당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 기쁨과 평화, 장수, 공의, 평화로운 자연질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그의 보좌로 삼으시고, 겸손하고 마음이 떠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금요일(스 1~4장)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 외부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됩니다. 시기적으로는 포로 귀환 1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자들의 명단이 자세히 기록되고, 족보를 증명하지 못해 제사장 직분에서 제외되는 인원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등 이방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바사 왕에게 거짓 고소함으로 성전 공사는 중단됩니다.



토요일(사 107,126,147편) 시편 107,126,147편은 모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감사와 회복의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세 시편 모두 여호와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강조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찬양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창조, 자연에 대한 통치가 언급되고, 시온의 회복, 성벽의 재건, 공동체의 회복이 주요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고, 악인은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이스라엘에만 주어졌음을 강조합니다. 107편은 전 우주의 구원 역사, 126편은 시온 회복의 감격, 147편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루살렘 회복을 중심으로 합니다. 모두 포로 귀환기 시편입니다.

주 일(학 1~2장) 학개 1~2장은 전체 두 장으로 구성된 짧은 예언서이며,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와 격려를 통해 그들을 깨우고 회복의 소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6년 후, 백성은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자신들의 집 짓기에만 집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근과 가뭄 등 경제적 어려움을 주십니다. 지금은 초라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따를 것이며, 장차 더 큰 메시아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 합심기도 :

1.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 백성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정의로운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3. 변화무쌍한 외교무대에서, 한국을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359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산삼학교회 교역자실(책임출제자: 박광서 부목사)